코로나 속 '기도회원제'…사찰경영 새 장르 열까

봉은사 등 연간 회원제도 도입

특별법회 · 할인혜택 등 눈길

신도소속감 증대, 재정도 일조

신도 소통, 신심 증장이 관건

- 봉은사, 13종기도 통합회원
- 구룡사, 5재일기도 연간 접수
- 화계사, 3종류 기도회원제 운영

밴드 · 문자로 관리, CMS 납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재정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연간 기도회원제'가 도입되고 있다. 유튜브 스트리밍 등 비대면 법회, 행사 중계와 함께 새로운 사찰경영의 축으로 자리잡을지 기대를 모은다.

6월 6일 서울 강남의 봉은사 미륵전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기도가 시작됐다. 3천불 회원제 특별기도가 그 것이다. 봉은사서 진행하는 3천불 회원제 특별기도는 1년 정기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찰에 오지 못하는 신도들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봉은사의 회원제 기도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봉은사 3천불 회원제 특별기도는 매월 CMS자동이체를 통해 월별, 연간결제를 하면 봉축기도, 출가열반기도, 안거기도부터 입춘, 칠석기도, 신중기도, 생전예수재 등 13가지의 기도에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기도다.

물론 기도를 하나로 묶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3천불 회원을 위한 별도의 혜택도 제공된다. 불교용품점인 서래원과 연회다원 용품의 10% 할인과 점심공양권 24장, 종일주차 6장 등도 제공된다. 또 주지 스님의 3천불 회원을 위한 별도의 법회도 진행된다. 사정이 있어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심상태 봉은사 기획행사팀장은 "코로나 확산이 끝나고 사찰의 행사와 기도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 기도 고정 동참자를 늘려보자는 의미에서 회원제 기도를 도입하게 됐다. 법왕루의 대형 스크린과 홈페이지에 동참자 명단을 띄우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피드백을 드리고 있다"며 "아직 초기이지만 여러 기도를 하시는 신도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봉은사와 같이 도심 대형사찰의 회원제 도입은 신도들의 기도 참여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신도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회원과 개별법회라는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같은 효과에 창원 구룡사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 지장, 관음, 산신재일의 5재일을 묶어 스님들이 축원하는 재일기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광명사도 인등기도부터 정초기도 등 사찰이 진행하는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회원제를 운영중이다. 특별회원이란 신도소속감 증대와 함께 고정보시라는 사찰 재정에의 도움은 덤이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헌금 제도가 있는 개신교계와 달리 불교계는 기도에 따른 들쑥날쑥한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기도회원제를 포함해 정기보시문화는 역으로 기도에 편중된 사찰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부가적으로 사찰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등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심의 대형사찰과 별개로 작은 사찰들은 회원제를 통해 고정수입이 마련되면 이른바 '신방' 같은 신도 맞춤형 가정법회 등 신행지원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효과에 5년 전부터 재일기도 회원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화계사의 경우 초하루기도에 이어 약사기도, 지장기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가지의 기도회원제 운영할 예정이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 '매일 기도하고, 매주 법문 듣고, 매달 보시하는 신행문화'를 모토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신행활동에서 회원활동의 비중은 작지만 신도조직화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문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과 같이 기도 회원제에 안주해서 오히려 신도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결국 회원제를 운영해도 신도들이 신심을 어떻게 내서 사찰로 나오고, 또 회원 신도들이 신심을 내서 신행활동을 하는지 돕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상주의 한 사찰에서 연간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부장 정인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신행문화가 퍼지는 가운데, 사찰신도로의 소속감을 높이고 재정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찰 운영에서 회원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도소통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야간 로스쿨 준비

7월 23일 제330회 이사회서 논의

사회서 논의 중인 야간 로스쿨제도 도입에 앞서 동국대가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동국대는 7월 23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이사 정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제330회 이사회를 열고 서울캠퍼스 로스쿨 추진경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김승용 기획처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여당의 총선 공략 내용으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야간 로스쿨의 유치를 위해 학내 준비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다. 로스쿨 구조조정과 야간 로스쿨 설립 필요성의 여론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로스쿨은 수도권 14곳과 비수도권 11곳 등 총 25곳으로 2000여 명이 수강 중이다. 종립학교로 구분해보면 개신교계는 2곳, 가톨릭계는 1곳, 원불교계가 1곳이지만 불교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동국대는 2006년과 2008년 로스쿨 설립을 추진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어 이번 야간 로스쿨 도입은 학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동국대는 국회 정각회 등과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8월과 9월 경 야간 로스쿨 준비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 디지털로 복원

국립문화재硏, 복원 결과 발표

중문 · 남회랑 증강현실로 되살려

실제 건축물 크기로 복원은 최초



황룡사 중문 및 남회랑 증강현실 복원안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됐던 신라 최대 사찰 경주 황룡사가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의 하나로 지금은 터로만 남아있는 황룡사의 일부를 증강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구현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를 하나하나 만들어 세부사항을 자세히 표현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로 복원한 것은 황룡사가 최초의 사례다. 특히 실제 건축물 크기로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처음이다.

황룡사는 553년(신라 진흥왕 14년) 창건을 시작한 이후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해 신라 최대의 사찰이 됐으나 1238년(고려 고종 25년)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라는 이름으로 터만 남았다. 9층의 목탑은 645년(신라 선덕여왕 14년)에 건립됐다.

이번에 디지털 복원을 마친 부분은 황룡사가 가장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통일신라시기의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이다.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크게 남문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중문 양쪽에 남회랑이 이어져있다. 복원한 중문의 크기는 가로 26.4m, 세로 12.6m이고 남회랑의 길이는 중문을 포함하여 272.5m이다.

이번 중문과 남회랑의 디지털 복원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1차로 완성한 제작물을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의 디지털 복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중문은 2층 규모의 우진각 지붕 형태와 1층 규모의 맞배지붕 형태 두 가지 모습으로 구현했다. 남회랑도 중문에 맞춰 2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과거의 일반적인 기존 디지털 복원물은 복원 건축물 앞에 사람이 있어도 건축물 뒤로 보이는 등 원근감이 무시됐지만, 이번 복원은 체험자와 건축물의 거리를 계산해 원근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게 특징이다. 이어 "2024년까지 황룡사 금당을, 추후에는 강당과 목탑도 디지털로 복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디지털 복원활용 사업의 새로운 유형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묘공당 대행선사 업적 연구로 재조명

제 2회 묘공학술상 장학금 전달식

7월 19일 한마음선원 법당서 열려

청진 스님 등 5명 장학생으로 선발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이 불교학 연구자 지원을 위해 제정한 제 2회 묘공학술상 장학금 전달식이 7월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5층 대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행선연구원측은 "지난해 3월 공모를 거쳐 선발된 최종 5명의 논문을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심사했다"며 "그 결과 이번 묘공학술상에는 아쉽게도 심사기준에 적합한 수상자를 찾지 못했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혜수 한마음선원 이사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묘공학술상이 2회 밖에 안돼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직 많은 학자들이 참여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묘공이라는 큰스님 법호가 담긴 학술상에 맞게 훌륭한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모두 마음 내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혜솔 한마음선원 주지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평소 대행선사께서는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하고 모든 생명에 내재된 불성인 그 한마음 에너지를 활용해 본인들 일상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토록 가르치셨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 은사스님이 강조하신 한마음 도리가 여러분들 학문 세계에 조금이라도 응용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명을 선발한 장학생 모집에 올해는 독일 유학중인 운산 스님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청진 스님, 서울대 철학과 박성일 씨, 동국대 미술사학과 진영아 씨, 동국대 불교학과 서민지 씨 등 최종 5명이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연간 5백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김주일 기자


제2회 묘공학술상 장학금 수여자들과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